

에스닉 패션 유형별 메이크업 특성에 관한 연구

오 세 희* · 최 해 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패션디자인기획학과* · 한성대학교 예술대학 패션디자인전공 교수⁺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Makeup by Ethnic Fashion Type

Se-Hee Oh* · Hae-Joo Choi⁺

Master Course, Dept. of Fashion Design Planning, Graduate school of Arts, Hansung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Hansung University⁺

(투고일: 2010. 11. 10, 심사(수정)일: 2010. 11. 30, 게재확정일: 2010. 12. 22)

ABSTRACT

Ethnic fashion and makeup were studied. 264 fashion designs from pret-à-porter collections in Milan and New York from 2001 S/S to 2005 F/W were analyzed. The major conclusions of the study are as the following: 1. The major types of ethnic fashion and makeup were Africa, American Indian, Japan, India, China and Inca. Makeup types expressed in ethnic fashion were soft smoky, smoky, retro, nature, avant-garde, eastern. 2. Makeup types expressed in ethnic fashion were used for the image for the designer's collections rather than ethnic features. Soft smoky and smoky makeup types were more used than others. 3. Soft smoky makeup types were more expressed in S/S seasons than in F/W seasons. In F/W seasons soft smoky and smoky makeup types were more expressed than other types. 4. Soft smoky and smoky makeup types were more expressed than others in Milan and New York collections commonly. 5. To emphasize the ethnic image for ethnic fashion, ethnic makeup arts like China, Japan, India, Africa, American Indian, Inca makeup arts and soft smoky, smoky makeup arts were represented.

Key words: ethnic makeup art (에스닉 메이크업 표현기법), smoky makeup (스모키 메이크업), soft smoky makeup (소프트 스모키 메이크업), Milan collection (밀라노 컬렉션), New York collection (뉴욕 컬렉션)

이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이 논문은 한성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 과제임.

Corresponding author: Hae-Joo Choi, e-mail: hjchoi@hansung.ac.kr

I. 서론

사회환경이 급변하고 문화와 정보가 쉽게 전파됨에 따라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로 발전하면서 타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응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패션의 경우 기계기술의 발전으로 기성복의 대량 생산과 함께 전 세계로 급속히 보급된 서양복식의 획일적인 스타일에 대한 반동적인 표현¹⁾과 포스트모더니즘 등의 영향으로 타 민족의 독특한 역사를 느낄 수 있는 민족지향적 복식이 등장하였다. 다국적 경향의 에스닉 스타일은 패션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트렌드로 대두되었다.

현대 패션에서 메이크업은 토털 패션의 한 요소로 중요시되고 있으며, 패션과 함께 메이크업도 종교, 정치, 경제, 사상, 철학, 풍습 등의 사회적 조건과 기후, 풍토, 민족의 피부색 등의 자연 조건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즉 메이크업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한 방법으로 그 시대와 지역의 문화를 반영하면서 발전하여 왔다.

에스닉 패션은 1960년대 말 히피문화의 영향으로 시작되어²⁾, 197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인 패션의 주제로 부각되었으며³⁾ 1990년대에 이후에는 타국의 전통적인 요소가 가미된 민속풍 의상이 예술적 감각으로 승화되어 세계 패션시장을 장식하며 보다 복합적이고 다중화된 패션을 창조하고 있다⁴⁾.

에스닉 스타일이 중요한 트렌드로 부각되고 에스닉 패션에 관한 연구도⁵⁾⁶⁾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닉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 패션의 중요한 트렌드로 대두되고 있는 에스닉 패션의 유형별로 메이크업 표현방식을 분석하고, 에스닉 패션과 조화를 이루는 메이크업을 제시함으로써 미래의 에스닉 패션에 따른 메이크업 표현방법을 개발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 이론적인 연구와 실증적인 연구를 병행하였다. 이론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국내·외 단행본과 간행물 및 학회지와 연구논문을 통해 선행 연

구를 고찰하였다. 실증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컬렉션에 발표된 패션 디자이너의 작품을 통한 시각적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보그(Vogue Italy), 펌(FEM) 등과 같은 국내·외 패션 전문 잡지의 밀라노와 뉴욕의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 사진, 케이블 TV(동아TV), 인터넷(www.firstview.com, www.cft.or.kr) 등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하였다.

컬렉션 개최지역의 선정은 파리, 런던, 밀라노, 뉴욕, 도쿄의 세계 5대 컬렉션 중, 세계 패션을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두 도시인 유럽의 밀라노와 미국의 뉴욕, 두 곳을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 컬렉션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범위는 2001년 S/S부터 2005년 F/W까지 5년간 밀라노와 뉴욕의 각 10회 컬렉션씩, 총 20회의 컬렉션으로 하였다.

참고문헌을 통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밀라노, 뉴욕 컬렉션의 패션 디자인을 대상으로 시각자료의 색상, 소재, 디테일 분석을 통해 에스닉 스타일의 패션 작품 총 267 디자인을 선정하였으며, 뒷모습 디자인 등을 제외한 264 디자인의 에스닉 스타일의 패션 작품에 표현된 메이크업 표현기법을 분석하였다.

분석 내용은 빈도와 백분율 분석을 통해 에스닉 패션과 메이크업의 유형분석, 시즌별, 컬렉션 지역별 에스닉 패션의 메이크업 특성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II. 에스닉 패션과 메이크업의 유형

1. 에스닉 패션의 개념

에스닉(ethnic:민속풍)이란 라틴어 ethnicus와 그리스어의 ethnikos에서 유래된 단어로, 사전적 의미로 '민족의', '종족의' 또는 '민족 특유의'라는 의미의 형용사이며, '민족의'라는 뜻 외에도 '이교도의'라는 의미가 담겨있다.⁷⁾ 특히, 아프리카, 중근동, 중남미, 중앙아시아, 몽고 등의 스타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비기독교권 즉, 이슬람교, 불교, 기타의 종교를 갖는 프리미티브한 경향이 보이는 것을 에스닉이라고 한다.⁸⁾

에스닉 패션이란 이국적인 이미지들에서 얻어지는 각 민족 고유의 의상과 염색, 직물, 패턴, 자수, 액세

서리 등의 각종 모티브와 디자인, 소재, 색상 등을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20세기 뿔 브와레 (Paul Poire)의 작업에서 동양 취미가 강한 에스닉 룩을 보인 후 1970년대 후반 많은 디자이너에 의해 여러 가지 에스닉 룩이 발표되었다.⁹⁾ 이러한 다른 나라의 매력적인 요소를 표현하는 에스닉 이미지는 급속히 변화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도시문명의 발달 하지 않은 이국적인 이미지의 전원이거나 미개발국의 이미지를 표현하여 도시 생활에서 활력을 찾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⁰⁾

2. 에스닉 메이크업의 개념과 전개

1) 에스닉 메이크업의 개념

원시 시대에 사용된 메이크업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동시에 주술적, 종교적인 의미와 신분 표시를 위해 사용되었다.¹¹⁾

에스닉 메이크업은 역시 에스닉 패션과 마찬가지로 서양의 시각에서 바라본 타국의 신비롭고 이국적인 아름다움을 차용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따라서 이국적인 이미지들에서 얻어지는 각 민족고유의 특징적인 화장법과 문신, 상흔 등의 신체 장식 방법을 표현한 것으로 중국의 경극 메이크업, 일본의 가부키 메이크업에서 영감을 받은 동양풍의 메이크업과 인도의 발리우드 메이크업, 아메리칸 인디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원주민의 느낌을 자아내는 이국적인 취향의 원시적인 메이크업, 신의 상징으로 눈을 표현하는 이집트의 메이크업 등으로 나타난다.¹²⁾

이와 같이 에스닉 메이크업은, 전통적인 메이크업의 모티브를 현대 메이크업에 접목시켜 이미지를 변화하고자 하는 역사성으로의 회귀경향을 나타내는 전통적인 이미지와, 다른 문화권의 분위기, 색채, 문양, 소재 등 이국적인 장식을 서구적 양식과 함께 융합된 형태로 표현하는 이국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다.¹³⁾

2) 에스닉 메이크업의 전개

메이크업은 인류와 동일한 유구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피부 표면에 직접 행해진다는 제한성으로 다른 치장 요소에 비해 그 표현방법과 형태의 변화가 두

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20세기 후반 포스트 모더니즘의 다원성과 함께 예술 전반에서 자유자재의 표현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예술의 한분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이 시기의 화장품 산업 발달에 힘입어 일반에게까지 보편적으로 행해지게 되었다. 또한 에스닉 메이크업 역시, 에스닉 패션이 20세기 후반 본격적으로 복식에 사용되면서 패션과 함께 조화를 이룬 토털패션의 일환으로 본격적인 메이크업의 큰 경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¹⁴⁾

1960년대에는 젊은이들이 기성세대의 관습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특유한 삶의 방식을 전개하고, 사회 문화 전반에 영향을 준 시대이다.¹⁵⁾ 메이크업 역시 젊음에 대한 찬미로 10대, 20대 소녀들의 새로운 유행을 표현하게 되었다. 사회 반항을 표출했던 히피족들이 서구의 팽배된 물질문명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화를 전개하면서 메이크업도 전반적으로 부드러워지는 경향을 띄어 내추럴한 색상과 함께 정교하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은 듯한 토속적이고 민속적인 패턴으로 등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메이크업은 자유롭게 풀어헤친 메시(messy) 헤어스타일, 민속풍, 전원풍의 집시(Gipsy) 의상이나 아메리칸 인디언 인디언, 동양풍의 의상 등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 나갔다.¹⁶⁾

1970년대 후반 메이크업은 베트남 전쟁의 영향으로 휴머니즘을 강조하는 움직임과 함께 동양에 대한 관심이 표현되었으며, 특히 1970년대 후반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을 통해 에스닉 패션 스타일, 포크로어 룩, 로맨틱 룩 등이 자연회복 운동과 함께 등장하면서 메이크업에 있어서도 동양과 타국의 아름다움을 재현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¹⁷⁾

1980년대 초반은 다양한 화장품의 종류와 컬러의 등장으로 인하여 메이크업 테크닉 또한 다양화되었다. 이 시기에는 혁명적인 색의 도입으로 이전 시대의 부드러운 조화들에 변화를 가져오면서 내추럴함보다는 인공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함에 따라 메이크업에 있어 에스닉 경향이 약화되고 실험적인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오존층 파괴와 환경문제의 대두와 함께 피부에 많은 관심이 생기면서 메이크업 경향 역시 부드럽고 여성스

려움이 강조된 내추럴풍과 에스닉 메이크업의 내추럴하고 원시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는 색상과 표현법이 사용되었다.¹⁸⁾

1990년대 초,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환경파괴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캠페인으로 에콜로지풍의 유행이 나타났다. 자연적인 숲과 땅의 색을 바탕으로 한 내추럴한 에콜로지 경향이 메이크업에서도 각광을 받았으며, 특히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Out of Africa)'의 흥행과 함께 나타난 유럽풍의 사파리룩이 아름다운 아프리카의 자연을 배경으로 소개되면서 현대 문명 속에서 아프리카의 아름다움이 패션 및 메이크업의 흐름으로 나타났다.¹⁹⁾

이와 같이 에스닉 메이크업은 20세기 후반 본격적인 메이크업 경향으로 자리 잡았으나 그 이전, 사회가 현대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오는 사회적인 반항의 일환으로 자연적이고 원시적인 아름다움에 관심을 돌리면서 나타난 에콜로지, 레트로, 내추럴 등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혼합되어 사용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3. 에스닉 패션과 메이크업의 유형

에스닉 패션과 메이크업에 관한 선행 연구²⁰⁾ 21)22)23)에 의하면 중국, 일본의 동양과 아프리카, 아메리칸 인디언과 남아메리카의 잉카, 그리고 동서양의 가운데에 위치한 인도와 중동, 남반구의 오세아니아 지역 등이 에스닉 스타일을 표현 하는 대표적인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의 각 지역에 따라 독특하고 민족적인 에스닉 문화가 발전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밀라노와 뉴욕 컬렉션에 나타난 패션과 메이크업의 에스닉 이미지 유형 분석을 위한 기준으로, 선행 연구에서 분류한 지역적 특성을 근거로 중국풍, 일본풍, 인도풍, 아프리카풍, 아메리칸 인디언풍, 잉카풍의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1) 중국풍 유형

중국풍 유형은 중국 황실 및 일반인들이 즐겨 입

던 치파오 등의 전통복식과 사선 여밈, 만다린 칼라, 끈 매듭단추, 십이지장문, 기하학 문양, 동식물 문양 등의 장식과 중국을 대표하는 문화로 잘 알려진 경극 무대의상의 특징을 기준으로 하였다.

당대 여성들은 다양한 화장법을 이용하여 이마나 볼에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꽃의 형상을 붙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전통 메이크업은 경극의 무대 화장법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중국을 대표하는 이미지의 메이크업으로 현대 패션쇼에도 자주 등장한다.²⁴⁾

2) 일본풍 유형

일본풍 유형의 경우 전통복인 기모노는 H라인에 남녀의 구별이 없는 복식으로 크기가 표준화되어 있다. 발목 길이에 소매는 길고 넓으며 목 부분이 V자로 파여져 앞이 트여 있으며 단추나 끈 없이 왼쪽 옷자락을 오른쪽으로 여며 허리에 오비를 두르는 형태이다.

자수와 염색을 이용한 화초문, 난초, 매화, 대나무 등과 나비, 학, 사군자의 문양을 사용하였으며 에도 시대와 겐로꾸시대에는 주홍색, 짙은 갈색, 남색, 검은색 등을 주로 사용하여 세밀하고 화려한 색을 연출하기 시작하였다.²⁵⁾

일본을 대표하는 화장술로는 일본 전통 무대극인 가부키를 들 수 있다. 일본 에도시대에 민중 연희로 탄생한 가부키의 분장은 역할의 성격과 연령, 신분 등을 한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으로 얼굴에 흰색을 칠하고 가늘고 긴 눈썹과 아이라인 끝을 올려 그려 날카로운 이미지를 나타내며 입술은 붉은색으로 작게 표현하였다.²⁶⁾²⁷⁾

3) 인도풍 유형

인도풍 유형에 있어서 전통복인 사리(sari)는 폭 1미터 내외, 길이 5~6미터의 긴 천을 둘러 입는 형태의 의복으로, 쯔리(choli)라는 타이트한 상의와 함께 허리를 노출하여 입는 원피스형 의복이다.²⁸⁾ 또한 튜닉 스타일의 의복인 살와르 까미즈(Salwar Kamiz)를 헐렁한 바지인 빠자마(pajama), 오르니(Orhni)라고 하는 스카프와 함께 착용하고, 화려한 자수와 주

름으로 장식된 발목길이의 바느질을 한 스커트인 가그라(Ghaghra)도 착용한다.²⁹⁾

인도에서는 화장을 통해 사회적인 신분을 나타낸다. 인도의 전통 메이크업 방법 중 헤나(henna)라는 식물의 잎을 갈아서 피부에 물들이는 화장법은 색상에 따라 그 의미를 달리하는데, 빨강은 불을 오렌지는 떠오르는 태양을, 황토색은 피를, 분홍은 지구를 상징한다.³⁰⁾ 많은 여성들은 자신이 기혼자임을 알리기 위해 머리를 빨강계 물들이었고 보호를 위해 눈 주위를 검게 칠했으며, 신에 대한 믿음의 표현으로 이마를 붉게 물들이기도 하였다.³¹⁾

4) 아프리카풍 유형

아프리카풍 유형의 경우 이슬람 문화권 영향권에 있는 사하라 북쪽을 제외하면 전통의복 보다는 기후 조건에 따라 신체에 직접 장식한 문양이나 장신구를 중심으로 한 복식문화가 형성되었다.³²⁾

아프리카인들은 장식의 욕구로 강한 동물을 모방하고자 하여 사자의 털을 족장의 머리에 두르거나 사냥한 동물의 뼈를 장신구로 이용하였으며³³⁾ 얼굴 말과 같은 신체 채색이나 피부에 상처를 내어 만드는 상흔을 통한 장식을 하였다. 대표적인 신체채색으로 빨간색과 흰색이 주로 사용되었으며³⁴⁾ 때로는 황토를 섞어 팔, 다리에 촘촘히 곡선이나 격자무늬, 얼룩말 무늬 등의 형태를 그려 넣기도 하였다.³⁵⁾

또한 수술, 종교적인 의례와 장식적인 의미로 상흔이나 문신을 사용하였으며, 그 외에도 성인식 대상이 되는 전사들에게는 석회가루를 섞어 만든 흰 물감 반죽으로 얼굴과 전신에 다양한 문양을 그려 넣고 눈 주위와 이마를 부각시키는 화장법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입술마개나 컷볼 절개, 금속 고리 등으로 목을 길게 만드는 신체변형으로 장식효과를 내어 성적 매력을 과시하기도 하였다.³⁶⁾

5) 아메리칸 인디언풍 유형

아메리칸 인디언풍 유형의 경우 북아메리카 원주민은 아름답게 염색된 가죽과 모피, 깃털 그리고 나무의 부드러운 껍질과 풀로 만들어진 스커트, 로브 헤어밴드 등과 두꺼운 생가죽이나 부드러운 가죽으로 마

수술 장식을 디테일로 사용한 모카신(moccasin), 새시(sash), 벨트(belt), 가터(garter), 목걸이 등의 다양한 액세서리를 사용하였다.³⁷⁾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각기 다른 종교의식에 따라 복식문양을 다르게 표현하였으며, 영적인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기 위한 주술적 의미의 복식을 착용하였다.

수호의 의미로 동물의 재료를 사용하였는데 독수리는 자유로운 정신을 가진 신성한 동물로 여겨 독수리 깃털을 의복에 덧붙이거나 직물을 직조할 때 섞어 사용하였다.³⁸⁾

6) 잉카풍 유형

잉카풍 유형의 경우 잉카는 북아메리카 지역과 근접해있는 지역으로 남아메리카의 중앙 안데스 지방인 페루, 볼리비아 지역의 복식을 구성하는 색상과 패턴 등의 문양에서 유사하나 동물의 가죽이나 깃털 등의 소재를 주로 사용하는 아메리칸 인디언의 전통 복식에 비해 좀 더 완성된 의복의 형태를 지니며 발달된 직조기술을 사용한 양탄자, 러그 또는 그 문양을 활용한 망토나 폴스커트 등의 의복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나바호(navajo) 아메리칸 인디언의 경우 여러 색으로 이루어진 줄무늬나 다양한 넓이의 밴드 직조기술이 발달하여 대각선, 지그재그선, 다이아몬드 형태, 노란색, 갈색, 파란색과 녹색, 붉은색 등으로 표현된 활동적인 표현이나 직선, 수평선, 수직선, 직사각형, 흰색, 검은색, 회색 등으로 표현된 정적인 패턴으로 나뉘어진다.³⁹⁾

잉카의 전통 메이크업은 아메리칸 인디언과의 지역적인 유사함 때문에 붉은 색을 강조하며 고유의 검정색 헤어와 눈썹을 그대로 살린 아메리칸 인디언 메이크업과 유사하다.⁴⁰⁾

에스닉 패션과 메이크업의 여섯 가지 유형을 전통 복식과 메이크업으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4. 메이크업 표현기법의 유형

메이크업은 의상을 더욱 돋보이게 연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메이크업에 사용된 표현기법을 살펴보면, 양취경, 김경란(2005)은⁴¹⁾ 전통적 메이크

<표 1> 에스닉 패션과 메이크업의 유형

유형	전통복식	메이크업	유형	전통복식	메이크업
중국			아프리카		
출처	Decorated Skin, 2002 p. 202	Frank Wing www.yahoo.com	출처	Decorated Skin, 2002 p. 156, p. 157	
일본			아메리칸 인디언		
출처	Decorated Skin, 2002 p. 217, p. 211		출처	Native American in Costume www.yahoo.com	Decorated Skin, 2002
인도			잉카		
출처	Decorated Skin, 2002 p. 180, p. 175		출처	August Racinet www.yahoo.com	Decorated Skin, 2002 p. 63

업과 레트로 메이크업, 뱀프(vamp) 메이크업, 에스닉 메이크업, 퓨처(future) 메이크업으로 분류하였고, 장현숙(2004)은⁴²⁾ 패션쇼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유형을 그 이미지에 따라 내추럴과 레트로, 에스닉, 아트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밀라노, 뉴욕 컬렉션의 에스닉 패션에 표현된 메이크업의 유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의 분류 방법과 함께 최근 컬렉션 등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기법을 중심으로 스모키(Smoky) 메이크업, 소프트 스모키(Soft Smoky) 메이크업, 레트로(Retro) 메이크업, 아방가르드(Avant-garde) 메이크업, 내추럴(Natural) 메이크업, 동양풍 메이크업 등 총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스모키 메이크업

스모키 메이크업은 2000년대에 가장 주를 이룬 메이크업 트렌드로 깊고 그윽한 눈매를 연출해 부드러운 이미지에서 성숙하고 극적인 느낌까지 다양한 이미지로 끊임없이 인기를 끌고 있는 표현이다. 스모키(smoky) 메이크업은 아이라인과 아이섀도우로 눈을 강조하고 어두운 피부표현과 입술 색상을 강조하거나, 누드톤의 색상으로 촉촉함이 없는 인공적인 느낌의 매트함으로 표현할 수 있다.⁴³⁾ 따라서 시각적으로 강조되는 광고 영상이나 쇼 무대 등 많은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메이크업 테마이다.

2) 소프트 스모키 메이크업

소프트 스모키(Soft Smoky) 메이크업은 부드러운 아이컬러를 사용하고 맑은 피부질감에 누드 톤의 입

술표현이 대표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소프트 스모키 메이크업 또한 시각적으로 강조되는 광고 영상이나 쇼 무대 등 많은 무대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메이크업 테마이다.

3) 레트로 메이크업

레트로 메이크업은 과거 유행했던 메이크업 스타일을 재현한 표현방법으로 크게 1930년대 레트로 스타일과 1950년대 레트로 스타일로 나타나고 있다. 1930년대 레트로 스타일은 할리우드 영화가 전성기를 맞이하던 이 시기의 영화 주인공들의 영향을 받아 그레타 가르보의 가는 활모양 눈썹과 아이홀의 깊은 음영, 긴 속눈썹, 그리고 볼륨감 있는 입술 등의 표현방법을 재현한다. 1950년대 레트로 메이크업은 화려함과 사치스러운 의상과 함께 마틸런 먼로, 오드리 헵번 등이 패션 아이콘으로 통하며 유행을 선도하던 시기에 유행한 메이크업 표현으로 금발, 윤기 나는 빨간 입술, 블랙 아이라인으로 정열적인 표현을 한 방법을 말한다.

4) 아방가르드 메이크업

아방가르드 메이크업은 프랑스어로 '앞서다', '전진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아방가르드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선구자', '침단을 걷는 사람'을 가리킨다.⁴⁴⁾ 따라서 아방가르드 메이크업은 일정한 틀 없이 예술성 위주의 메이크업을 말할 때 사용되며 실사 메이크업의 범위에서 벗어나 무한한 창의력이 표현되는 메이크업 방법이기도 하다.

5) 내추럴 메이크업

내추럴 메이크업은 기존 연구에서 주로 자연주의로 표현된 방법으로,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강조하지 않고 내추럴한 아름다움을 부각시킬 수 있는 투명한 피부표현과 건강함, 활발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메이크업이다.⁴⁵⁾ 눈이나 입술에 장식적이고 인위적인 기교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눈 화장은 내추럴한 색상으로 음영만을 표현하며 입술은 립그로스로 윤택함을 더해주고 립라이너로 윤곽을 살짝 살려준 뒤 눈화장과 유사한 중간색조로 정리해주는 것이

특징이다.⁴⁶⁾

6) 동양풍 메이크업

동양풍 이미지는 중국과 일본의 전통적인 메이크업 표현 방법을 포괄적으로 흡수한 테마로 동양인 고유의 하얗고 깨끗한 피부톤을 강조하고 붉고 작은 입술과 붉은 계열의 볼터치로 뺨 부분을 강조하여 하얀 피부를 한층 강조하고 수줍은 듯한 인상을 더해주는 표현기법이다.⁴⁷⁾ 또한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되 기보다는 흰 피부톤 위에 블랙 색상의 눈썹 표현과 레드 색상의 입술과 볼터치만으로 정갈한 느낌을 표현한다.

III. 에스닉 패션의 메이크업 표현기법 특성

1. 에스닉 패션 유형별 메이크업 기법

메이크업의 유형 분류를 위해 에스닉 패션 작품 중 메이크업의 기법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총 264 작품을 대상으로 하였다. 에스닉 패션에 연출된 메이크업을 스모키 메이크업, 소프트 스모키 메이크업, 레트로 메이크업, 아방가르드 메이크업, 내추럴 메이크업, 오리엔탈 메이크업 등 총 여섯 가지의 유형에 따라 분류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에스닉 패션의 여섯 가지 유형에 따라 적용된 메이크업을 여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총 264 작품 중 소프트 스모키 메이크업이 총 172 작품으로 65.2%의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다. 그 다음으로 스모키 메이크업이 76 작품에서 나타나며 28.8%를 나타내었으며, 나머지 네 가지의 유형은 16작품, 약 6.1%로 매우 저조한 비중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에스닉 패션과 조화를 이루는 메이크업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법은 소프트 스모키 메이크업과 스모키 메이크업의 두 가지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스모키 메이크업의 표현방법인 그을린 듯한 태닝 피부 표현과 검게 강조한 아이라인 등의 기법이 에스닉한 이미지의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패션과 조화의 극대화를 이룰

〈표 2〉 에스닉 패션유형별 메이크업 표현기법

n=264. 단위:작품수(%)

패션 유형	메이크업 표현기법	Milano	NewYork	패션 유형	메이크업 표현기법	Milano	NewYork
아프리카 풍	소프트 스모키	27 (58.7)	15 (93.7)	일본풍	소프트 스모키	24 (72.7)	8 (61.5)
	스모키	18 (39.1)	0 (0.0)		스모키	8 (24.3)	1 (7.7)
	레트로	0 (0.0)	1 (6.3)		레트로	0 (0.0)	0 (0.0)
	아방가르드	0 (0.0)	0 (0.0)		아방가르드	1 (3.0)	1 (7.7)
	내추럴	1 (2.2)	0 (0.0)		내추럴	0 (0.0)	0 (0.0)
	동양풍	0 (0.0)	0 (0.0)		동양풍	0 (0.0)	3 (23.1)
계		46(100.0)	16(100.0)	계		33(100.0)	13(100.0)
인도풍	소프트 스모키	19 (70.4)	4 (26.7)	잉카풍	소프트 스모키	10 (52.6)	9 (81.8)
	스모키	6 (22.2)	11 (73.3)		스모키	9 (47.4)	2 (18.2)
	레트로	1 (3.7)	0 (0.0)		레트로	0 (0.0)	0 (0.0)
	아방가르드	0 (0.0)	0 (0.0)		아방가르드	0 (0.0)	0 (0.0)
	내추럴	1 (3.7)	0 (0.0)		내추럴	0 (0.0)	0 (0.0)
	동양풍	0 (0.0)	0 (0.0)		동양풍	0 (0.0)	0 (0.0)
계		27(100.0)	15(100.0)	계		19(100.0)	11(100.0)
아메리칸 인디언풍	소프트 스모키	25 (65.8)	10 (100.0)	중국풍	소프트 스모키	14 (51.9)	7 (77.8)
	스모키	13 (34.2)	0 (0.0)		스모키	6 (22.2)	2 (22.2)
	레트로	0 (0.0)	0 (0.0)		레트로	6 (22.2)	0 (0.0)
	아방가르드	0 (0.0)	0 (0.0)		아방가르드	0 (0.0)	0 (0.0)
	내추럴	0 (0.0)	0 (0.0)		내추럴	0 (0.0)	0 (0.0)
	동양풍	0 (0.0)	0 (0.0)		동양풍	1 (3.7)	0 (0.0)
계		38(100.0)	10(100.0)	계		27(100.0)	9(100.0)

수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여섯 가지의 패션 유형별로 각각 사용된 메이크업 기법 역시 소프트 스모키 메이크업과 스모키 메이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에스닉패션의 아프리카 유형에서 소프트 스모키 메이크업과 스모키 메이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에스닉의 이미지가 강한 아프리카유형의 패션에는 아이메이크업만을 강조한 스모키 메이크업의 기법을 통해 메이크업보다는 패션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한편 중국 유형에서는 레트로 메이크업의 기법이 6작품, 22.2%를 나타내며 다른 유형과 차이를 보였으며, 일본 및 중국 유형에서도 동양풍 메이크업의 표현기법보다는 역시 소프트 스모키 메이크업과 스모키 메이크업의 사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에스닉 패션 유형에 따른 메이크업 표현기법은 〈표 3〉과 같다.

〈표 4〉는 메이크업 유형별 표현기법을 나타낸 것이다.

디자이너별로는 대부분의 디자이너가 소프트 스모키 메이크업과 스모키 메이크업을 비슷한 비중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중에서도 장 프랑코 페레 (Gianfranco Ferre), 에트로(Etro), 다이안 본 퍼스텐버그(Diane von Furstenberg) 등 에스닉 패션을 많이 선보이는 디자이너의 무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알비에로 마티니(Alviero Martini)의 경우 에스닉 스타일의 패션과 함께 스모키 메이크업을 주로 선보였으며 미소니(Missoni), 막스 마라(Max Mara), 란세티(Lancetti), 안나 수이(Anna Sui), 블루마린(Blumarine) 등의 디자이너 및 브랜드는 소프트 스모키 메이크업을 에스닉 스타일의 패션과 함께 자주 사용하였다.

<표 3> 에스닉 패션 유형에 따른 메이크업 표현기법

에스닉유형	아프리카	아메리칸 인디언	일본	인도	중국	잉카
패션과 메이크업						
디자이너	지안 프랑코 페레	스포츠 막스	란세티	란세티	모스키노	에트로
컬렉션	2001 S/S 밀라노	2002 S/S 밀라노	2005 S/S 밀라노	2005 F/W 밀라노	2004 S/S 밀라노	2004 F/W 밀라노
메이크업 유형	스모키	소프트 스모키	소프트 스모키	스모키	동양풍	스모키

<표 4> 메이크업 유형별 표현기법

메이크업 유형	스모키	소프트 스모키	내추럴	레트로	아방가르드	동양풍
표현기법						
패션유형	잉카풍	아메리칸 인디언풍	아프리카풍	아프리카풍	일본풍	중국풍
디자이너	에트로	스포츠막스	로베르토 까발리	오스카 드 라 렌타	안토니오 마라스	모스키노
컬렉션	2004 S/S 밀라노	2002 S/S 밀라노	2005 S/S 밀라노	2005 S/S 뉴욕	2004 F/W 밀라노	2004 F/W 밀라노

2. 시즌별 특성분석

S/S시즌과 F/W시즌별 메이크업 유형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5>와 같이 여섯 가지 메이크업의 유형 중 소프트 스모키 메이크업과 스모키 메이크업의 비중이 월등히 높게 나타난 경향이 시즌별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S/S시즌에는 소프트 스모키 메이크업과 스모키 메이크업의 비중이 179작품, 93.8%의 비중으로 나머지 네 가지의 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소프트 스모키 메이크업의 비중이 134작품, 70.2%의 비중으

로 45작품, 23.6%인 스모키 메이크업의 비중에 비해 3배 가량 높게 나타나 S/S시즌에는 소프트 스모키 메이크업 선호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F/W시즌에는 소프트 스모키 메이크업과 스모키 메이크업의 비중이 각각 38작품, 52.0%와 31작품, 42.5%로 S/S시즌과는 달리 F/W시즌에는 두 가지 유형이 큰 차이 없이 함께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5> 시즌별 메이크업 유형 분포

n=264, 단위: 작품수(%)

시즌	메이크업유형	작품수 (%)
S/S	소프트 스모키	134 (70.2)
	스모키	45 (23.6)
	레트로	6 (3.1)
	아방가르드	1 (0.5)
	내추럴	2 (1.0)
	동양풍	3 (1.6)
계		191 (100.0)
F/W	소프트 스모키	38 (52.0)
	스모키	31 (42.5)
	레트로	2 (2.7)
	아방가르드	1 (1.4)
	내추럴	0 (0.0)
	동양풍	1 (1.4)
계		73 (100.0)
총계		264

<표 6> 컬렉션 지역별 메이크업 유형 분포

n=264, 단위: 작품수(%)

지역	메이크업유형	작품수 (%)
밀라노	소프트 스모키	119 (62.6)
	스모키	60 (31.6)
	레트로	7 (3.7)
	아방가르드	1 (0.5)
	내추럴	2 (1.1)
	동양풍	1 (0.5)
계		190 (100.0)
뉴욕	소프트 스모키	53 (71.6)
	스모키	16 (21.6)
	레트로	1 (1.4)
	아방가르드	1 (1.4)
	내추럴	0 (0.0)
	동양풍	3 (4.0)
계		74 (100.0)
총계		264

3. 밀라노 컬렉션과 뉴욕 컬렉션의 비교

컬렉션 지역별로도 앞의 내용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 밀라노 컬렉션에서도 소프트 스모키 메이크업과 스모키 메이크업의 비중이 179작품, 94.2%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 소프트 스모키 메이크업의 비중이 119작품, 62.6%의 비중으로 60작품, 31.6%인 스모키 메이크업의 비중보다 두 배 가량 많이 보였

다(표 6).

뉴욕 컬렉션의 경우도 소프트 스모키 메이크업과 스모키 메이크업의 비중이 69작품, 93.2%로 높게 나타났으나, 밀라노 컬렉션보다는 소프트 스모키 메이크업의 비중이 조금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그 비중이 매우 작기는 하나, 오리엔탈 메이크업과 아방가르드 메이크업의 경우 뉴욕 컬렉션에서, 내추럴 메이크업과 레트로 메이크업의 경우 밀라노 컬

<표 7> 밀라노와 뉴욕 컬렉션에 표현된 메이크업 기법

컬렉션	밀라노			뉴욕		
	메이크업 유형	소프트 스모키	스모키	레트로	소프트 스모키	스모키
표현기법						
디자이너	에트로	에트로	조지오 아르마니	마크 제이콥스	오스카 드 라 렌타	버나즈 사라포르
시즌	2001 F/W	2004 S/S	2005 S/S	2001 S/S	2003 F/W	2005 S/S

렉션에서 주로 나타났다.

밀라노와 뉴욕 컬렉션에 선보인 에스닉 패션에 표현된 메이크업 기법은 <표 7>과 같다.

밀라노 컬렉션에서 소프트 스모키 메이크업을 가장 많이 선보인 디자이너는 인도풍 패션과 함께 소프트 스모키 메이크업을 표현한 에트로(Etrot)와 주로 아프리카풍, 중국풍의 패션과 함께 표현한 로베르토 까발리(Roberto Cavalli)로 나타났으며, 스모키 메이크업을 가장 많이 선보인 디자이너는 아메리칸 인디언풍 패션과 스모키 메이크업을 표현한 미소니(Missoni)와 주로 인도풍의 패션과 함께 표현한 알비에로 마티니(Alviero Martini)로 나타났다. 그 외 뉴욕 컬렉션에 비해 밀라노 컬렉션에서 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 레트로 메이크업은 중국풍의 패션과 함께 연출한 조지오 아르마니(Giorgio Armani)의 작품에서 대부분 나타났다.

뉴욕 컬렉션에서는 주로 아메리칸 인디언풍의 패션과 함께 소프트 스모키 메이크업을 표현한 안나 수이(Anna Sui)의 컬렉션에서 소프트 스모키 메이크업이 가장 많이 보였으며, 안나 수이(Anna Sui)의 경우 연구대상이 된 기간의 컬렉션 모든 작품에 소프트 스모키 메이크업만을 사용하는 특징을 보였다. 그리고 잉카풍과 중국풍, 인도풍의 패션과 조화를 이룬 오스카 드 라 렌타(Oscar de la Renta)의 컬렉션에서는 스모키 메이크업이 가장 많이 보였다. 그 외 밀라노 컬렉션에 비해 많이 보였던 오리엔탈 메이크업을 선보인 디자이너는 버나즈 사라포르(Behnaz

Sarafpour)로 기모노 디테일의 패션과 함께 오리엔탈 메이크업을 표현하였다.

이와 같은 메이크업의 유형분석을 통해 에스닉 패션의 유형별로 메이크업의 유형이 각각 다른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밀라노와 뉴욕에서 열린 컬렉션에서 디자이너들은 에스닉 패션의 유형별로 메이크업의 유형을 달리 표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최근 개최된 밀라노와 뉴욕 컬렉션에서는 컬렉션에 소개되는 의상에 따라 메이크업의 변화를 주기보다는 컬렉션 전반의 컨셉에 따라 메이크업의 유형을 정하여 패션과 조화를 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V. 에스닉 패션의 메이크업 제안

본 연구 내용 결과를 바탕으로 에스닉 패션과 조화가 되는 메이크업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표 8).

첫째, 컬렉션 전반에 걸쳐 어떤 의상과도 잘 어울리면서 시즌의 유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메이크업을 제시하되, 최근 국내의 패션쇼 무대 및 기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메이크업의 표현방법인 소프트 스모키 메이크업과 스모키 메이크업의 두 가지 컨셉의 작품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에스닉이 현대 패션의 주제로 각광받고 있는 점을 감안, 에스닉 스타일의 패션과 함께 에스닉한 이미지를 더욱 강조할 수 있는 장식효과를 부여

하는 메이크업으로 에스닉 메이크업을 제안하되, 앞서 언급된 에스닉 패션의 각 여섯 가지 유형과 연출할 수 있는 메이크업을 중국, 일본, 인도, 아프리카, 아메리칸 인디언, 잉카 등의 여섯 가지 컨셉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품 제안을 통해 앞으로의 컬렉션 뿐만 아니라 다양화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관련 여러 무대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메이크업의 표현방법을 제시하며, 에스닉 메이크업 외에도 무대를 드라마틱하고 화려하게 장식할 수 있는 창조적인 메이크업 표현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한다.

1. 작품 1(스모키 메이크업)

컨셉에 따라 피부톤을 밝게 하거나 어둡게 표현할 수 있으나, 매트한 질감과 약간의 인위적인 느낌의 커버력이 필요하다.

에스닉한 이미지를 가미하기 위해 볼을 크고 어둡게 과장하여 표현하였으며, 스모키 메이크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캣 아이 표현을 위해 블랙 라이너와 펜슬로 눈의 형태를 크게 잡아 표현하고, 블랙 새도우를 넣어서 눈을 더욱 강조하였다.

인조 속눈썹과 마스크라로 강한 눈매를 극대화시킨 후, 입술은 누드톤으로 매트하게 표현하여 인위적이고 도발적인 눈의 느낌을 강조시켜 연출한다.

2. 작품 2(소프트 스모키 메이크업)

맑은 피부 표현을 위해 피부톤에 맞는 파운데이션 색상으로 가볍게 발라주고 투명 파우더로 마무리한다.

눈썹은 자연스러운 이미지로 표현하고 브론즈 색상과 라이트 브라운 색상으로 아이새도우를 넣어주고, 아이라이너와 마스크라로 눈매를 풍성하게 표현한 후 언더라인에 블랙 펜슬과 아이새도우로 눈매에 깊이감을 더해준다.

오렌지 색상과 브론즈 색상으로 볼에 발라주고 입술은 베이지 핑크와 립글로스로 부드러운 느낌을 주어 마무리한다.

3. 작품 3(에스닉 메이크업-중국)

화이트 스틱 파운데이션이나 크림 컬러를 이마, 콧등, 턱을 중심으로 퍼 바르고, 레드크림 컬러를 눈썹과 노즈 라인을 기준으로 선명하게 바른 후 광대뼈 아래로 턱 선을 향해 자연스럽게 퍼 발라준다. 눈썹은 꼬리를 올려 주듯 조금 굽게 펜슬로 그리고 크림컬러나 케익 아이라이너로 한번 더 강조하며, 아이라이너로 눈매를 감싸듯 눈초리를 길게 그려서 강조한다.

눈썹 경계와 아이라이너 경계 부분에 레드 새도우로 한번 더 발라주어 강조시킨 뒤, 레드 펜슬로 입술 라인을 또렷하게 그려준 뒤 레드 립스틱을 선명하게 바른다.

4. 작품 4(에스닉 메이크업-일본)

화이트 스틱 파운데이션을 얼굴, 목, 귀까지 퍼 발라 두들겨서 밀착시킨다. 붉은 색상은 노즈라인, 눈 밑, 볼까지 바르며 화이트 파우더나 투명 파우더를 듬뿍 발라 매트하게 표현한다.

눈썹은 반달 형태의 곡선으로 가늘게 그린다. 눈길이만큼 짧고 날카롭지 않은 느낌으로 약간 올려서 아이라인을 그려 강조하고 언더라인은 중심부터 시작하여 위 라인과 연결되지 않게 약간 띄어 일자 형태로 그리며, 인 라인 부분은 레드 펜슬로 메워준다. 입술은 콧방울 크기만큼 작게, 레드 컬러를 이용하여 윗입술은 가늘고 아랫입술은 도톰하게 그려준다.

5. 작품 5(에스닉 메이크업-인도)

대표적인 이미지 중의 하나인 그을린 듯한 피부 연출을 위해 오일 계열과 다크 브라운 컬러 파운데이션을 이용하여 퍼 발라주고, 오렌지 컬러와 다크 브라운 파우더로 유분을 제거해 매트하게 피부를 표현한다.

눈썹은 블랙 펜슬과 새도우를 이용해 진하고 두껍게 표현한다. 눈화장은 블랙 펜슬과 아이라인을 이용해 눈의 형태를 어둡게 강조하며, 오렌지 색상과 다크 브라운 색상의 아이새도우를 발라주어 눈매를 강

조시킨다.

이마에 인도의 고유문양을 그리거나 빈디(bindi) 액세서리를 붙여준다.

입술은 약간 크게 형태를 잡아서 그려준 후 브라운과 오렌지 색상의 립컬러를 발라 마무리한다.

6. 작품 6(에스닉 메이크업-아프리카)

어두운 피부 표현을 위해 어두운 파운데이션을 얼굴과 몸에 연결해서 바른 후 브라운 계열의 다크 파우더로 마무리한다. 흰색 아쿠아 컬러를 이용해 이마와 눈 주변에 동물문양이나 열대나무 무늬, 그리고 여러 가지 선의 느낌으로 그려주어 표현한다.

블랙 아쿠아 컬러를 이용해 흰색 사이에 블랙선을 그려 강조시키고, 목과 가슴 부분에도 토속적 느낌을 위해 아프리카와 타투와 같은 느낌이 들도록 블랙

아쿠아 컬러로 그려 넣어준다.

7. 작품 7(에스닉 메이크업-아메리칸 인디언)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피부톤을 표현하기 위해 다크브라운 크림 파운데이션을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퍼 바른다. 이때 얼룩없이 잘 퍼 발라 갈색 계열의 피부톤을 자연스럽게 연출하도록 한다.

피부톤이 완성되면 유성이나 수성의 페인팅 제품을 이용하여 아메리칸 인디언 특유의 기하학적인 문양이나 상징들을 페인팅 하듯 그려준다.

눈썹을 일자 느낌으로 그려주되 조금 짧고 눈썹꼬리를 아래로 쳐지듯 표현하여 원주민의 느낌을 살린다.

아이라인은 홀부분과 언더부분에 길게 빼듯 과장하여 그려주고 레드 계열의 립스틱으로 입술을 완성

<표 8> 에스닉 패션의 메이크업 제안

메이크업 유형	스모키	소프트 스모키	중국	일본
메이크업 작품				
메이크업 유형	인도	아프리카	아메리칸인디언	잉카
메이크업 작품				

하여 마무리한다.

8. 작품 8(에스닉 메이크업-잉카)

피부톤을 어둡게 표현하기 위해 브라운 톤의 파운데이션으로 피부톤을 정리한 후, 붉은 색상의 유성 컬러로 반원을 그리듯 코 윗선으로 페인팅한다.

턱주변은 한톤 더 어둡게 표현하고 눈썹은 강조하지 않으면서, 눈매를 강조하기 위해 블랙 색상의 라인으로 눈 위, 아래 라인을 또렷하게 표현한다.

잉카를 대표하는 기하학적인면서도 복합적인 선으로 구성된 문양을 포인트 부분에 그려준 뒤, 입술은 피부톤과 연결되어 보이도록 튀지 않게 갈색 계열로 그려준다.

V. 결론

다양성과 개성이 존중되는 다원주의 사회와 대중매체의 발달, 자연과 환경에 대한 중요성의 대두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 현대 패션의 미적 기준은 서양중심의 문화에서 원시적이거나 익숙하지 않은 다른 문화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에스닉 이미지는 토털 패션을 표현하기 위한 중요한 미적 기준으로 각광 받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에스닉 이미지의 패션과 메이크업의 유형을 분석하고 에스닉 패션에 표현된 에스닉 메이크업의 표현기법을 살펴보았으며, 에스닉 패션을 위한 메이크업 작품을 제시하였다.

2001년 S/S부터 2005년 F/W까지 밀라노와 뉴욕에서 열린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의 작품 중 에스닉 이미지의 작품 264 디자인과 메이크업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에스닉 이미지의 패션과 메이크업을 아프리카, 아메리칸 인디언, 일본, 인도, 중국, 잉카의 여섯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에스닉 패션에 표현된 메이크업 표현기법의 유형은 소프트 스모키 메이크업, 스모키 메이크업, 레트로 메이크업, 내추럴 메이크업, 아방가르드 메이크업, 동양풍 메이크업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에스닉 패션에 표현된 메이크업 표현기법은

에스닉 이미지 보다는 컬렉션 전체의 패션과 어울리는 이미지가 주로 사용되었다. 소프트 스모키 메이크업과 스모키 메이크업이 다른 기법에 비해 큰 비중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즌별 메이크업 경향은 S/S시즌에는 소프트 스모키 메이크업이 스모키 메이크업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F/W시즌에는 소프트 스모키 메이크업과 스모키 메이크업이 큰 차이 없이 사용되었다.

넷째, 컬렉션 지역별 특성을 비교하면, 밀라노와 뉴욕 컬렉션에서 동일하게 모두 소프트 스모키 메이크업이 스모키 메이크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에스닉 패션을 더욱 돋보이게 할 메이크업의 표현기법으로, 소프트 스모키 메이크업과 스모키 메이크업과 함께 에스닉한 이미지를 더욱 강조하는 방법으로 중국, 일본, 인도, 아프리카, 아메리칸 인디언, 잉카의 각 유형별 에스닉 메이크업 작품을 제안하여 보다 생동감있는 컬렉션의 메이크업 아이디어로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 1) 최혜주, 안은경 (2003). 국내 복고주의 패션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복식*, 53(2), p. 141.
- 2) 박종희 (1995).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복고풍에 관한 고찰-1960년대 mode의 재현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정연자 (1993). 현대 패션에 나타난 민속풍(Ethnic look)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4), p. 128.
- 4) 최영옥 (2005). 현대 에스닉 패션(Ethnic Fashion)의 특성 분석. *한국의류산업학회지*, 7(5), p. 481.
- 5) 박진희 (1994). 20세기 후반 fashion에 나타난 African primitivism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원 석사학위논문.
- 6) 서봉하 (2004). 1990년대 이후 에스닉 룩의 폐쇄형과 개방형의 시기각적 연구. *복식*, 54(4), p. 151.
- 7) 두산동아편집부 (2006). *동아프라이밍한사전*. 서울: (주)두산동아, p. 878.
- 8) 이상혜 (1994). *현대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동방풍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1.
- 9) 라사라패션 편집부 (2002). *패션용어사전*. 서울: 라사라패션정보, p. 48.
- 10) 서봉하. *앞의 책*, p. 151.
- 11) 양취경, 김경란 (2005). 다문화시대 하드리브 패션과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복식*, 13, p. 373.
- 12) 장현숙 (2004). *패션쇼에 나타난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5.

- 13) 임영자, 김선영 (2000). 현대 패션에 표현된 New Orientalism에 관한 연구. *복식, 제50호*, p. 51.
- 14) 양숙희, 장미숙 (1990).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네오 아방가르드 경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413.
- 15) 간문자 (1996). 1960년대 저항 패션이 민속풍 패션에 미친 영향. *복식, 30*, p. 153.
- 16) 양숙희, 장미숙. *앞의 논문*, p. 32.
- 17) *네이버 백과사전*, 1970년대 스타일. (<http://www.naver.com>)
- 18) 양숙희, 장미숙. *앞의 논문*, p. 41.
- 19) 박성희 (2006). *아프리카 에스닉 이미지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31.
- 20) 서봉하. *앞의 논문*, pp. 151-152.
- 21) 최영옥. *앞의 논문*, pp. 484-485.
- 22) 김수진, 한명숙 (1998). 1990년대의 패션과 메이크업에 경향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6*, pp. 89-90.
- 23) 박성희. *앞의 논문*, p. 9.
- 24) 김교회 (2003). *패션경향에 따른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5) 진경옥, 이민정 (2003). 오리엔탈리즘을 응용한 유니폼 디자인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5*, p. 446.
- 26) 김교회. *앞의 논문*, p. 16.
- 27) 김수진, 한명숙. *앞의 논문*, p. 90.
- 28) *네이버 백과사전*, 인도복식. (<http://www.naver.com>)
- 29) 이옥순 (2002). *인도에는 카래가 없다*. 서울: 책세상, p. 77.
- 30) 김성희 (2002). *에스닉 스타일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작품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4.
- 31) 장현숙. *앞의 논문*, pp. 48-49.
- 32) 양숙희, 장미숙. *앞의 논문*, p. 422.
- 33) 장현숙. *앞의 논문*, p. 49.
- 34) Berebice Geoffory-Schneider (2001). *Ethnic Style*. Kentucky: Assouline, p. 22.
- 35) 박진희. *앞의 논문*, p. 8.
- 36) 박성희. *앞의 논문*, p. 19.
- 37) 엄윤경 (1994). *북아메리카 민속의상의 수술허 장식을 응용한 복식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4.
- 38) 이민경, 한명숙 (1998). 북아메리칸 북아메리카의 복식재료에 나타난 유럽적 요소. *복식문화연구, 6*, p. 39.
- 39) 정미실 (2002). 19세기 후반 전환시대 Navajo 북아메리카직물의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40*, p. 39.
- 40) 장현숙. *앞의 논문*, p. 48.
- 41) 양휘경, 김경란. *앞의 논문*, pp. 370~374.
- 42) 장현숙. *앞의 논문*, pp. 44-49.
- 43) 김경숙 (2000). 세기말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경향. *한국미용학회지, 6*, p. 543.
- 44) 양숙희, 장미숙. *앞의 논문*, pp. 424-425.
- 45) 김수진, 한명숙. *앞의 논문*, p. 89.
- 46) 손영미, 이혜정 (2005). 헤어, 메이크업 디자인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7*, p. 659.
- 47) 김교회. *앞의 논문*, pp. 15-16.